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19.12.16)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이 곧 국가'인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국내) 12월 봉형강 판재류 가격 약세 기조 전환
(중국) 열연 철근 가격 역전. 하락국면 진입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포스코 야마토그룹과 베트남 SS VINA 공동경영 (본지 13일자 보도)
중국의 초대형 제철소 해안 철강벨트 구축 (본지 11일자 보도)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철강업계 매출순위 '요동'...수출 주력기업 '썩춤', 대한제강 한철 중견 19사 하락
5. 금주의 자료 : 1)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9.12.06)
2) 2019년 하반기 니켈 가격 급상승 요인 분석 및 중기적 향방 (출처 : POSRI, 19.12.04)
3)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2.12)
4)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출처 : 한국무역협회, 19.11.28)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철강이 곧 국가'인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트럼프가 중국 등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철강부터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그 근거이자 이슈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철강이 곧 국가'였다.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이유 탓이다. 하지만 그런 철강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홀대받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올해도 세계 조강(Crude Steel) 생산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월 누계 조강생산량은 15억4164만톤으로 3.2% 증가했다. 수요를 공급이 훨씬 앞서면서 시장의 공급과잉은 좀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철강산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는 없다. 나아가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도 보장하기 힘들다.

중국 철강산업은 국영체제다. M&A를 통한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도 그 덕분이다.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이유다.

일본은 정부와 철강업계의 협력이 최대 강점이다. 민관의 공동 인식과 정책 실행력이 높은 이유다.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인도 철강산업은 무엇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철강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고 '글로벌화'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철강사들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산업 성숙화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은 제조업체들을 도와주는 커닝 옥죄기만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철강산업에 대한 시각은 '담합 덩어리'에서 변치 않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 등 자동차 3사에 무려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철강재 구입 시 담합을 했다는 이유다. 반면 우리 철근 제조업체들은 2015년 5월부터 1년8개월 동안의 판매가격 담합으로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간을 비교할 때 과징금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판매담합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구매담합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담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재를 하더라도 경고에 그쳐왔다.

철근은 단순한 소비제품이 아니다. 건설사가 유일한 최종 수요가다. 기업 간의 문제를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이분 논리로 공급자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은 제조업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구호성 정책은 있지만 실제로 기업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철강산업의 미래, 방향을 담은 제대로 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철강사들은 외로운 전쟁 중이다. '철강이 곧 국가'라고 주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더욱 생각나는 이유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광석·원료탄…철광석 강세, 11월 저점비 20%↑…원료탄 월초 혼조에서 전주 '약세'

철스크랩(고철)…글로벌 초강세 vs 국내 약세

철강재…(국내) 12월 봉형강 판재류 가격 약세 기조 전환

(중국) 열연 철근 가격 역전. 하락국면 진입

◆ 철광석·원료탄 (철광석 강세, 11월 저점비 20%↑…원료탄 월초 혼조에서 전주 '약세')

1. 철광석 11월 저점 대비 20% 급등

- 12/13일 기준 Fe 62% 94.2달러 기록
- 11월 말 대비 8.2%(7.1달러) 상승
- 11월 11일(저점) 대비 20.0%(15.7달러) 상승
- 일주일(6~13일) 변동폭 6.1%(5.4달러) 상승 강세기조

2. 철광석 강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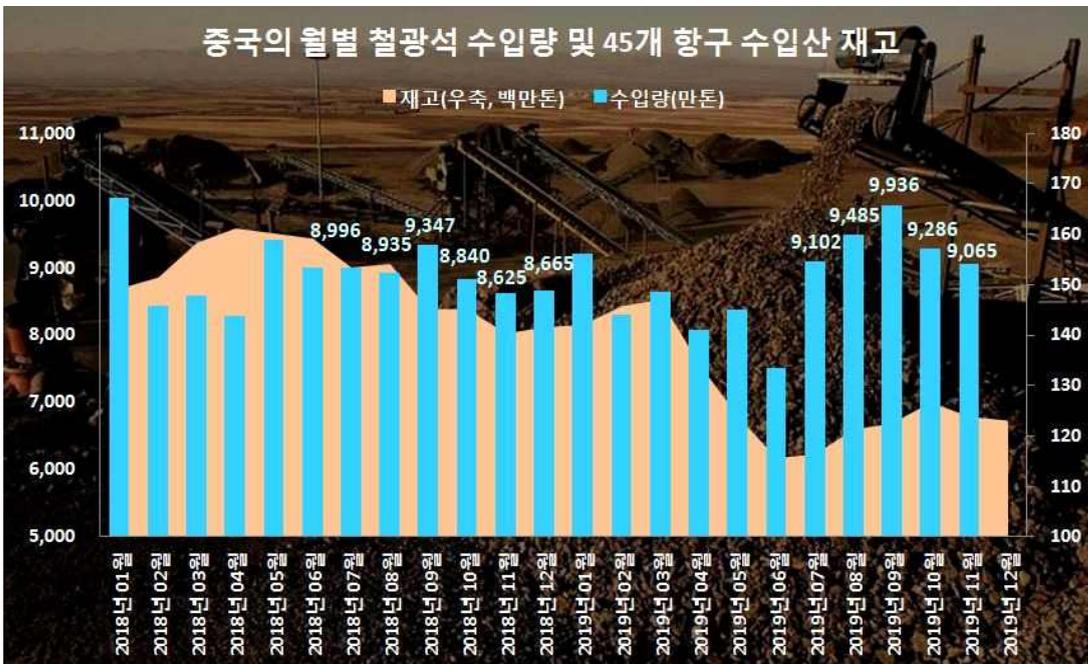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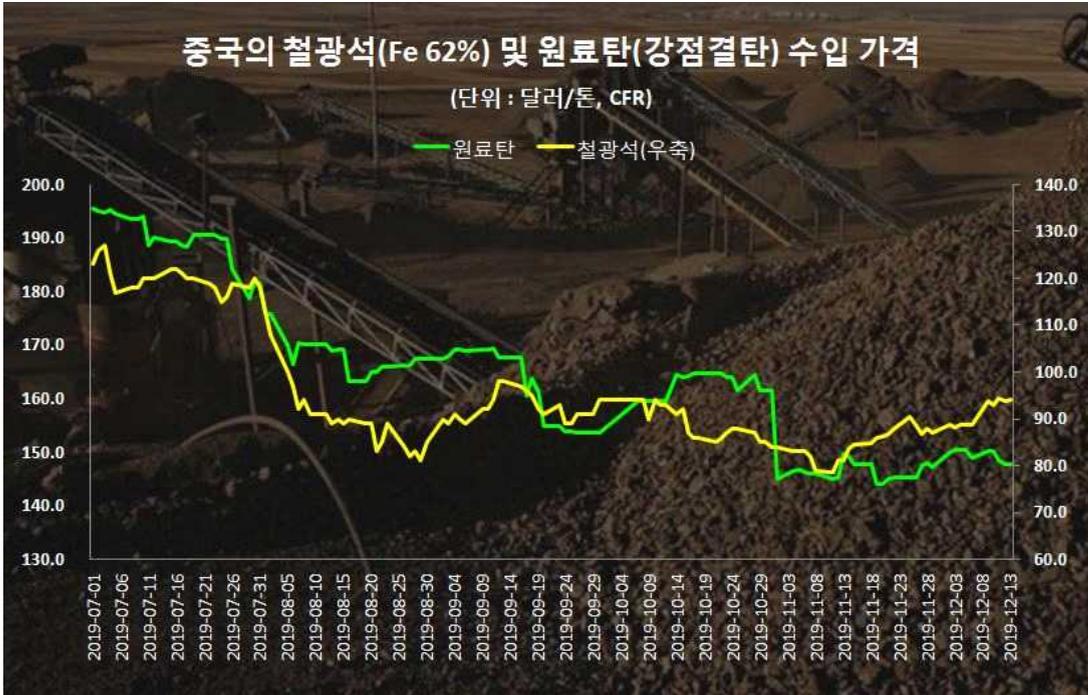
- 철광석 수요 강세
 -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5개월 연속 9천만톤 이상
 - 7월 9102만톤, 8월 9458만톤, 9월 9936만톤, 10월 9286만톤, 11월 9065만톤
 - * 작년 같은 기간 8000만톤대에서 증가기록 (아래 그래프 참고)
 - 중국의 높은 생산량 + 내년 춘절(1월 24일~30일) 대비 재고확보
 - * 통상 춘절 연휴 일주일 전부터 대다수 휴무 돌입. 1월 영업일수는 보름이 채 안됨
- 중국의 낮은 재고
- 45개 항구 재고 12/13일 기준 1억2300만톤
- 작년 12월 1억4200만톤보다 1900만톤 적음
 - 중국은 올해부터 증설이 본격화, 내년 비교적 건조한 수요를 배경으로 철강생산 및 철광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3. 원료탄(강점결탄) 약세

- 중국 수입 : 13일 기준 CFR 147.7달러 11월 말 대비 0.3%(0.4달러) 상승
- 호주 수출 : 13일 기준 FOB 134.0달러 11월 말 대비 2.8%(3.8달러) 하락

* 일주일(6~13일) 변동폭

- 중국 수입 0.9%(1.3달러) 하락/호주 수출 2.9%(4.0달러) 하락 '약세기조'



◆ 철스크랩 : 글로벌 초강세 vs 국내 약세

1. 국내 - 제강사 가격인하로 전환

- 제강사 12월 1,2주차 인상 이후 지난주부터 인하를 본격화
한국철강 16일부 전등급 5000원, 대한제강 18일부 전등급 1만원 인하 ,
한국특수형강 16일부 5000원 인하(선반설 제외, 입고 오후 2시까지 제한)

* 글로벌 급등세 불구하고 국내 입고량 꾸준

<배경>

재고가 많지 않음. 제강사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상황을 체감. 위기의식이 높아짐.
올해 매출 급감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음.
제강사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회전하는 편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2. 국내 수입

- 일본산 H2 12월 2주차 FOB 2만6000엔 계약(계약자는 확인 안됨)
- 이후 일본 관동철원협회 11일 입찰
H2 낙찰가 FAS 평균 2만5804엔. FOB 2만7000엔 평가
최고 낙찰 가격은 FAS 2만6300엔
→ 동경제철은 12월 11일 3번째 인상 500~1000엔
- 현대제철은 지난주 미국 대형모선 수입 시장 파악.
→ 업계에서는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32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 현대제철이 수입
진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현대제철 동국제강 1월 선적분 수입산 모두 확보
→ 1월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지만 글로벌 강세가 계속되고 있어 최고점에 계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현재 수입을 추진할 경우, 글로벌 상승세를 인정하고 국내 인상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어 1월 이후 선적분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기 진퇴양난의 상황임.

3. 글로벌 철스크랩 동향

- 미국 대형모선 오피 가격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320달러로 평가
- 미국 컨테이너
HMS No.1&2(8:2) 기준 CFR 톤당 265달러 성약(대만)
베트남향 오피 가격은 280달러까지 상승
- 일본 H2 FOB 2만7000엔 이상 평가
- * 한국 도착도 기준 30만원을 상회. 국내 경량A 23~24만원.
→ 근거리 일본산과 격차가 7만원 이상 확대. 제강사들은 국내 가격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
자칫 국내가 급등세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평가.

플래츠(Platts) 아시아 고철 계약/오퍼/비드 동향 Asia Scrap Heards (12 Dec)

Deals

- + Cont/ US/ 80:20/ \$265/ CFR TW/ 0.5kt (wed)
- + Cont/ SG/ 50:50/ \$285/ CFR n.VN/ 5kt (fri)
- + Bulk/ JP/ HS/ \$316/ CFR n.VN/ 4kt (last thu)
- + Bulk/ JP/ H1:H2/ \$275/ CFR TW/ 3kt (mon)

Off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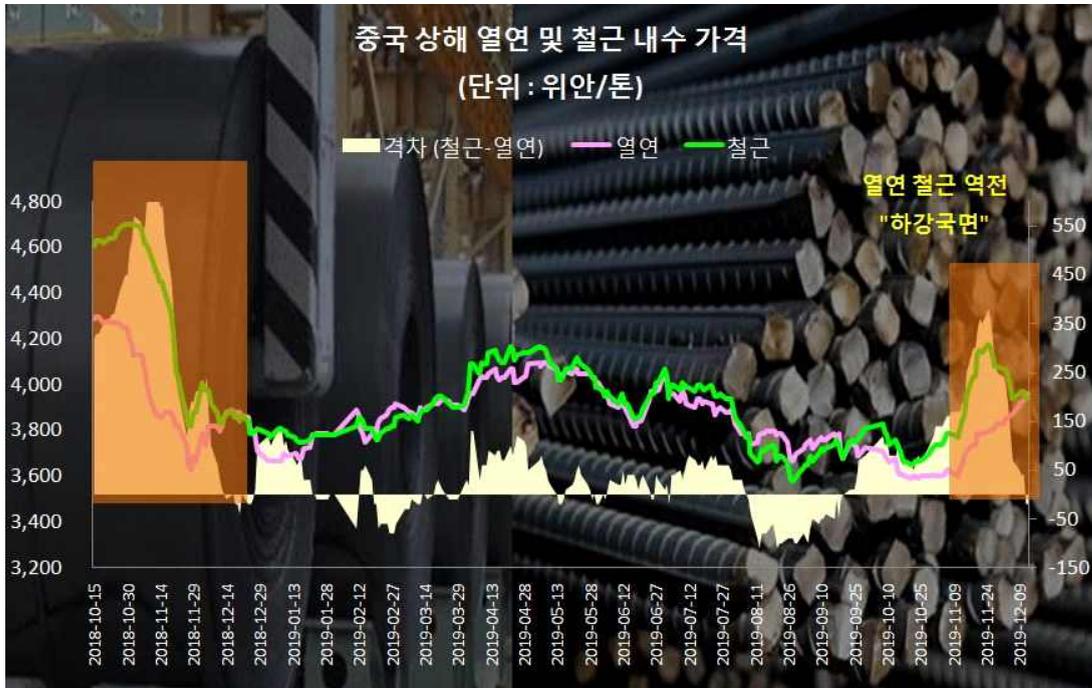
- + Bulk/ JP/ HS/ \$326/ CFR n.VN
- + Bulk/ JP/ Shindachi/ \$320/ CFR n.VN
- + Bulk/ JP/ H1:H2/ \$300/ CFR n.VN
- + Bulk/ JP/ H1:H2/ \$290/ CFR s.VN
- + Bulk/ JP/ H1:H2/ ¥26,900/ FOB
- + Bulk/ JP/ H2/ \$285-\$295/ CFR s.VN
- + Bulk/ JP/ H2/ \$287/ CFR n.VN
- + Bulk/ JP/ H2/ ¥26,000/ FOB
- + Bulk/ M'sia/ H2/ \$280-285/ CFR VN

- + Bulk/ US/ 80:20/ \$305-310/ CFR s.VN
- + Bulk/ US/ 80:20/ \$305/ CFR Thai
- + Bulk/ HK/ 50:50/ \$293/ CFR n.VN
- + Bulk/ HK/ 50:50/ \$280/ CFR s.VN
- + Cont/ US/ 80:20/ \$265/ CFR TW
- + Cont/ US/ 80:20/ \$265-\$267/ CFR s.KR
- + Cont/ US/ 80:20/ \$270/ CFR Thai
- + Cont/ US/ 80:20/ \$280/ CFR s.VN
- + Cont 40"/ US/ 80:20/ \$265/ CFR s.VN

Bids

- + Bulk/ JP/ H2/ \$278/ CFR s.VN
- + Bulk/ JP/ H2/ ¥25,500/ FOB
- + Cont/ US/ 80:20/ \$261-263/ CFR TW
- + Cont 40"/ US/ 80:20/ \$260/ CFR s.VN

◆ 철강 가격 : 2018~2019 추세 '재연'



1. 중국 열연 철근 가격 역전. 하락국면 진입

- 상해 내수 가격은 12일부 열연 3960위안, 철근 3940위안으로 열연이 철근을 역전
- 11월 말 열연 3830위안, 철근 4080위안으로 철근이 250위안 높았음. (최대격차 11/25일 380위안)
- 철근은 지난 일주일간(6~12일) 140위안 하락, 열연은 130위안 상승
- 철근 하락은 건설수요 부진 상황을 그대로 반영.

- 작년의 경우 올해보다 한달 빠른 11월부터 하락세가 본격화. 올해 2월까지 약세
- 철근 가격은 작년 정점인 11월 초 열연을 최고 630위안 상회했으나 이후 급락세가 전개되면서 12월 중순부터 열연보다 낮아짐.
- 2019-2020년 시즌은 작년 추세가 재연. 내년 춘절 연휴인 1/24~30일 이후에나 반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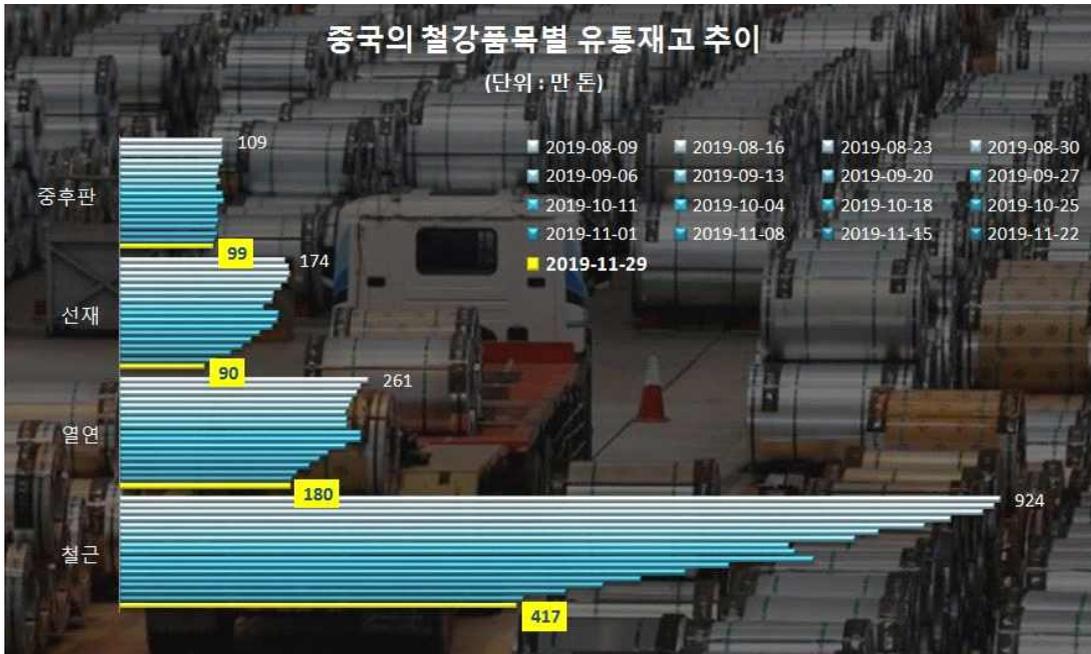
2. 중국 철근 유통재고(아래 그래프 참고)

- 12/13 426만톤 : 12월 첫 주 424만톤으로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 재고조정 이후 12월 동절기 현재 건설수요 감소로 소폭의 증가세

* 재고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 :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

철근 426만톤(445만톤) 열연 164만톤(207만톤) 선재 90만톤(100만톤) 중후판 95만톤(99만톤)

→ 내년 수요업체 구매 재개 및 가격 상승 전환시 급등세를 기록할 가능성 있음.



3. 상해 선물 시장

- 5월 인도분 거래 : 13일 기준 철근 3523위안, 열연 3569위안
 - 전주 6일 마감 대비 : 철근 86위안 상승, 열연 135위안 상승
 - 11일 고점 대비 철근 14위안 하락, 열연 15위안 상승
- 내수 가려과 같이 약세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 철근 하락으로 열연 상승폭 제한되면서 동반 하락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국내 철강 시장 : 12월 봉형강 판재류 가격 약세 기조 전환

1. 한국향 철강재 오피, 철근 '급등', 열연 '보합', 냉연도금 '상승'

<본계강철> CFR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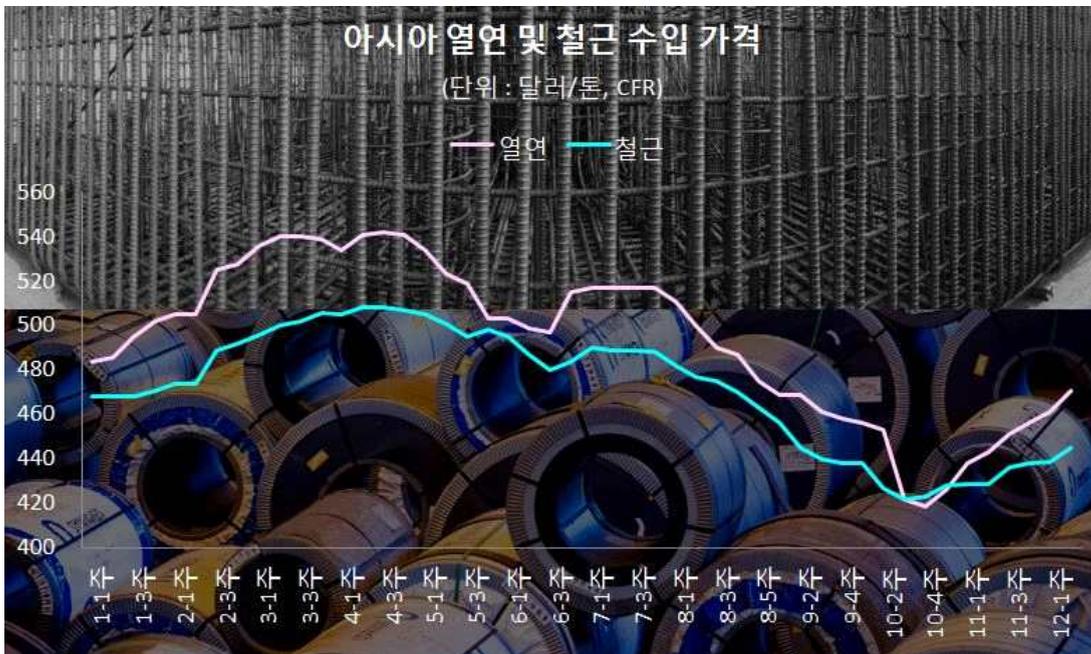
- 열연코일 : 488달러 보합 2월적
- 산세코일 : 528달러 보합 2월적
- 냉연코일 : 548달러 5달러 상승 2월적
- 아연도코일 : 613달러 5달러 상승 2월적
- * 달러환율 : 1191.70원 (10일 화요일)
 - 열연-냉연 가격격차 60달러
- * 대만 상첸 열연 두께 1.9mm 베이스 기준 490달러 (CFR)

<용강강철>

- 베이스 : SD400 505달러 11월 초 465달러서 급등
- Size extra : SD400 add USD10/톤 (직경 10mm)
- Grade extra : SD500 add USD20/톤 , SD600 add USD30/톤
- Length extra : under 8m add USD20/톤

*. 아시아 수입 가격 (CFR 기준)

- 11월~현재 상승세 지속
- 열연 470달러 저점 대비 52달러 상승
- 철근 445달러 저점 대비 22달러 상승



2. 12월 봉형강 판재류 가격 약세 기조

1) 판재류 (현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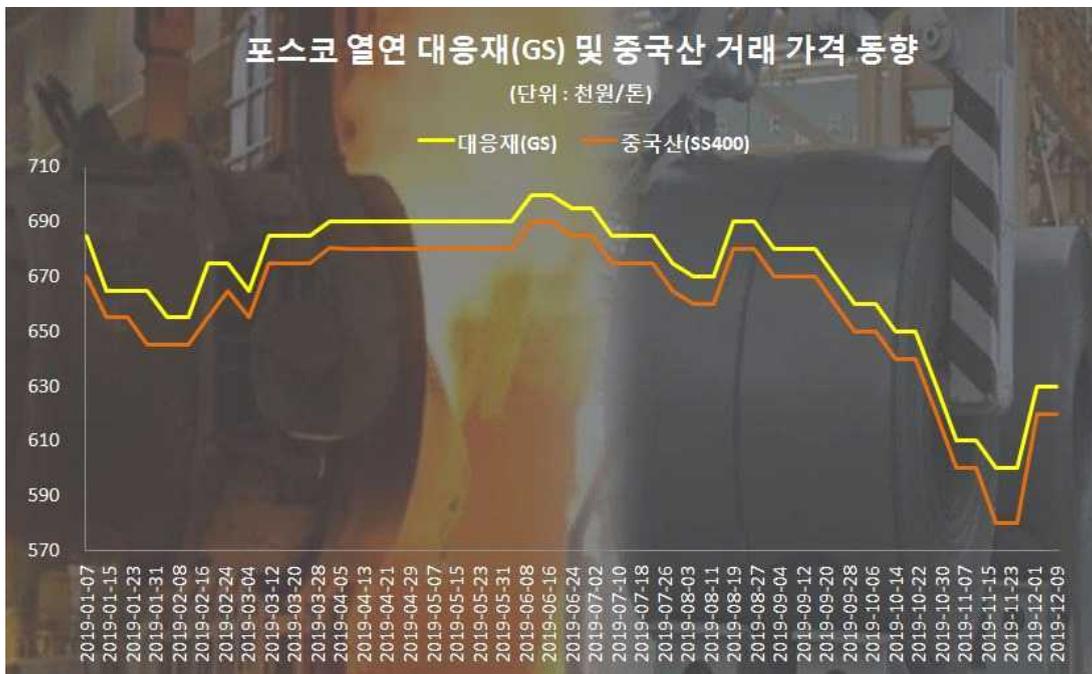
- 포스코산 대응재 : 후판 62만원 열연 63만원
- 중국산 열연 : 62만원
- 현대제철 열연 : 64만원
- 호가 유지중이나 하방압력. 실제 거래 가격은 이보다 1만원 낮은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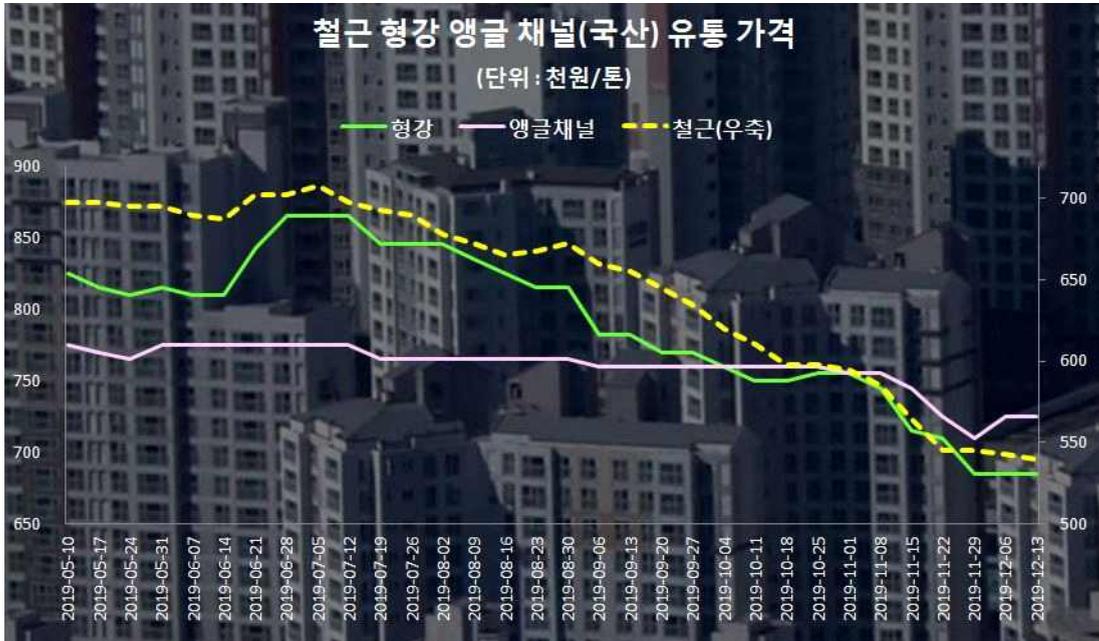
2) 철근

- 국산 54만원, 중국산 51.5만원
- 7월부터 하락세 지속,
- 하락폭 국산 17만원, 중국산 13.5만원 폭락

3) 형강

- 국산 : 72.5만원
- 포스코 베트남 : 63.5만원
- 7월~11월까지 하락세, 하락폭 국산 14만원, 포스코베트남 15만원
- 12월 국산 1만원 상승 (현대제철 동국제강 인상효과), 포스코베트남 약세지속
- 포스코 현대제철 인상효과로 호가는 올랐지만 이후 하락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관측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12.13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 (FOB)	현물	USD/bbl	64.92	▲0.91	1.42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 (CIF)	현물	USD/ton	478.33	▼32.29	-6.14	월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 (도매가)	현물	KRW/ton	250,000.00	▼45,000	-15.25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 (수입가 CFR)	현물	USD/ton	94.63	▲0.61	0.65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 (FOB)	현물	USD/ton	136.58	-	-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6,154.00	▲57	0.93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63.50	▲8.5	0.48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4,145.00	▲335	2.43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279.00	▲50	2.24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1,934.00	▲14	0.73	일간

◆ <LME> 美/中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 급부상

- 이베스트투자증권 -

(12일) 올해 마지막 미 연준의 FOMC 미팅에서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함.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은 당분간 금리를 인상 시킬 뜻이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 안도감을 주며 하루를 시작함. 이 후, 글로벌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다소 조용한 모습을 연출. 미국시간 오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빅딜이 매우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함. 하지만, 1단계 합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까지는 양국에서 들려오는 협상 관련 소식에 주목해야 할 것임

1. 금일 전기동(Copper)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들이 유입되면서 장 초반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새벽에 끝난 미 연준의 FOMC 미팅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에는 제한을 두며 3M \$6,100레벨을 유지. 또한, 최근 꾸준히 감소 움직임을 보인 LME 재고가 금일 역시 5,000톤 이상 감소하면서 Copper 가격 상승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줌. 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무역합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유지. 알루미늄(Aluminum) 역시 여타 비철금속들과 연동하며 강세 연출. 하지만, Copper와 달리 LME 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Aluminum 가격은 추가 상승에 제한을 두며 3M \$1,770레벨에서 등락하며 장을 마감.
2. 안전자산인 금(Gold) 가격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약보합세 연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 이 후 1단계 무역합의가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 가격은 소폭 하락

<Market News>

LME 니켈 인도가능 재고 52% 급증 (Reuters)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LME 니켈 인도가능(on-warrant) 재고가 하루 만에 52% 급증한 102,036톤을 기록해 지난 8월 29일 이후 최고 규모. 최근 니켈 재고 유입흐름은 중국의 차익거래(arbitrage)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추가적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日 알루미늄 수입업체들, 1분기 프리미엄 톤당 \$83 합의 (Reuters)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알루미늄 수입업체들이 1분기 선적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톤당 \$83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前분기 대비 14% 인하된 것으로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수치. 참고로, 이번 합의 이전에 생산업체가 제시한 오피는 톤당 \$92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中 Shandong Fangyuan社, 파산 루머 부인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민간銅제련업체 중 한 곳인 Shandong Fangyuan Nonferrous Metals Group이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는 인터넷 상의 루머를 부인하면서 평소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현재 회사가 어느 정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들과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Aurubis社, 차기 회계연도 실적 올해 수준 예상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유럽지역 최대 Copper 생산업체인 Aurubis社가 2019/2020 회계연도 실적(earnings before taxes)이 주요 제련설비들의 유지보수를 위한 섣다운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192M 유로(약 \$211.62M)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도 이번해 수준과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아울러, 벨기에-스페인 금속리사이클링그룹인 Metallo社 인수계획에 대해 EU의 반독점 규제 관련 당국이 지난달에 조사를 개시했다며 내년 4월까지의 최종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동시에, 추가적인 해외사업확장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印尼 Inalum社, 2022년까지 알루미늄 수입 중단 예상 (Reuters)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영 알루미늄업체 Inalum(PT Indonesia Asahan Aluminium)社가 연 백만톤 생산 규모의 제련소급 알루미늄 플랜트의 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근접함에 따라 2022년까지 알루미늄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루미늄 약 25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는 현재 年 50만톤 가량의 알루미늄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혀.

LME 비철금속 OFFI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월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CASH	3M	CASH	3M
	BID	ASK	BID	ASK				
Copper	6,095.00	6,097.00	6,118.50	6,119.00	5,937.00	5,963.78	5,859.69	5,880.60
Aluminum	1,754.50	1,755.00	1,765.00	1,767.00	1,765.72	1,761.00	1,772.31	1,766.36
Zinc	2,228.00	2,229.00	2,233.00	2,234.00	2,241.61	2,232.61	2,432.95	2,394.43
Lead	1,918.00	1,920.00	1,930.00	1,932.00	1,894.61	1,909.33	2,031.90	2,035.45
Nickel	13,800.00	13,810.00	13,850.00	13,860.00	13,408.33	13,461.67	15,199.52	15,214.05
Tin	17,175.00	17,185.00	17,075.00	17,100.00	16,991.67	16,956.67	16,369.29	16,386.43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Evening Valuation (종가) (단위: USD/Metric Tons)

	CASH	3MTHS	DEC19	JAN20	FEB20	MAR20	APR20	MAY20
Copper	6,130.50	6,156.00	6,131.75	6,141.50	6,151.25	6,158.00	6,162.00	6,167.00
Aluminum	1,761.75	1,775.00	1,763.00	1,758.00	1,768.50	1,776.25	1,781.25	1,790.00
Zinc	2,262.50	2,263.00	2,262.00	2,265.25	2,265.25	2,260.00	2,253.00	2,248.00
Lead	1,925.25	1,938.00	1,925.75	1,931.75	1,936.50	1,937.50	1,938.50	1,939.50
Nickel	14,042.50	14,100.00	14,042.50	14,064.50	14,093.50	14,102.50	14,121.50	14,144.50
Tin	17,273.00	17,250.00	17,273.00	17,263.00	17,258.00	17,250.00	17,235.00	17,220.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재고 (단위: Metric Tons)

	금일 재고동향					재고 상세내역		
	전일 재고	입고 (IN)	출고 (OUT)	금일 재고	전일 대비	ON WRT	CXL WRT	CXL Chg
Copper	181,700	1,200	7,075	175,825	-5,875	116,150	59,675	-7,075
Aluminum	1,330,825	15,000	2,025	1,343,800	12,975	1,218,125	125,675	-10,100
Zinc	57,300	0	600	56,700	-600	42,800	13,900	-550
Lead	67,400	0	25	67,375	-25	64,575	2,800	400
Nickel	96,774	25,518	234	122,058	25,284	102,036	20,022	-9,504
Tin	6,485	0	25	6,460	-25	5,010	1,450	-25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포스코 야마토그룹과 베트남 SS VINA 공동경영 (본지 13일자 보도)

포스코는 일본 야마토그룹(Yamato Kogyo Group)에 베트남 SS VINA(이하 SS비나) 지분 49%의 지분을 매각하고 공동경영을 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포스코는 13일 SS VINA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마토그룹은 글로벌 형강 전문 기업으로 시너지가 클 것이란 판단이다. 야마토그룹은 국내 YK스틸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포스코는 지분과 함께 철근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SS VINA를 베트남 유일 형강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SS VINA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협력 검토 결과 글로벌 형 강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야마토그룹과 공동 경영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마토그룹은 미국, 일본, 태국, 바레인, 사우디 등에서 형강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글로벌 사업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따라 포스코의 SS VINA 지분은 100%에서 51%로, 야마토그룹은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포스코는 베트남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야마토그룹의 기술경쟁력과 동남아 시장 판매역량을 결합해 SS VINA 형강사업에서 높은 시너지 창출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고 강건재 사업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 VINA는 베트남 봉따우성 푸미공단에 위치한 형강 50만톤, 철근 50만톤의 총 연산 100만톤 규모의 생산·판매 법인이다. 2015년부터 생산 및 판매를 개시했으나 베트남 내 철근 업체의 라인 증설과 업체간 경쟁 과열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중국의 초대형 제철소 해안 철강벨트 구축 (본지 11일자 보도)

중국의 철강 대형화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페로타임즈는 11일 연말기획으로 중국의 증설과 철강 가격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봤다.

2019년은 글로벌 철강시장이 장기침체로 들어선 단계로 인식된다. 철강사 실적을 좌우하는 가격은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과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철강사들의 신증설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한 외형 확대가 그 중심에 있다.

특히 해안 철강벨트가 대규모로 구축된다. 최신 설비는 필수 조건이다. 규모와 기술을 완비한 중국의 위협은 2010년 이후 저가재로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것과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2020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10년을 보낼 철강시장은 '매우 경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 가격의 추세적 흐름과 중국의 설비증설 등의 투자 계획을 살펴봤다.

[연말기획①] 대륙 철강의 재편-초대형 '해안철강벨트' 구축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

요약 : 해안 철강벨트 구축 최소 7천만톤 증설...정부·금융 정책적 지원
1억4200만톤 건설완료 9620만톤 '건설중' 4320만톤 '건설예정'
동남아 2000만톤 증설에 관여...안산성 2억톤까지 확대 예상

[연말기획②] 산업재편의 중심 바오우그룹 '2억5천만톤'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

요약 : 인수합병 그린필드 투자 대형화 '2억톤 공룡' 진화단계
중앙정부 소유 인수합병 '일단락'→지방정부 소유 합병추진
6월 마안산 인수 이후 11우리 쇼우강 산둥강철 인수발표

[연말기획③] 대륙 철강의 재편…中國 2020년 가격 하방압력 ↑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4>

요약 : 2025년까지 매년 5000만톤씩 감소전망…對美 수출감소 부동산 등 수요정체
정부 FAI 증대 정책기조 수요 ‘긍정적’…가격 추세적 흐름 주목 1분기 강세 예측

※ 아래 관련 자료 첨부

중국 해안 철강벨트 설비증설 현황 및 예정 프로젝트

건설완료 : 1억420만톤/건설진행중 : 9620만톤/건설예정 : 4320만톤

회사	생산능력	건설	회사	생산능력	건설
Hbis Co	2,000	진행중	Ningbo Iron & Steel	400	완료
Shougang Jingtang	2,000	진행중	Guangxi Shenglong Metallurgical	340	진행중
Others in Hebei Province	2,000	진행중	Linyi Sande Special Steel	300	완료
China Baowu	2,000	예정	Lianyungang Xing Xin	300	완료
Rizhao Steel	1,800	완료	Fujian Sangang	300	진행중
Baoshan Iron and steel	1,700	완료	Guangdong Guangqing Metal	300	완료
Liuzhou Iron & Steel	1,470	진행중	Weifang Special Steel	300	완료
Baoshan Iron & Steel	1,080	완료	Shandong Shounguang Juneng Special	260	완료
Handan Zongheng Iron steel	800	완료	Tangshan Delong Steel	240	완료
Xuzhou Baofeng Special steel	800	예정	Linyi Sande Special Steel	200	완료
Shandong Steel Group Rizhao	800	완료	Jiangsu Delong Nickel Industry	200	진행중
Jiangsu Binxin Special Steel	720	예정	Shandon Linyi Lingang ST	200	예정
Angang Steel Bayuquan	620	완료	Fujian Dingsheng	170	진행중
Huasheng Jiangquan Group	600	예정	Dongbei Special Dalian	120	완료
Minmetal Yingkou Medium plate	600	완료	Shandong Luli	100	완료
Baosteel Desheng ST	570	진행중	Fusian Wuhan ST	80	완료
Liugang Zhongjin ST	500	진행중	Guangdong Youngjin Metal	70	진행중
Qingdao Special	420	완료	합계		244

중국 6대 철강그룹 및 주요계열사 생산능력 현황

단위 : 만톤

	조강생산능력	비고	
바오우그룹(Baou Group)	1억1400만톤		
바오산그룹(Baosteel Group)	5,400		
우강그룹(Wugang Group)	3,000	2016년 합병	
마강그룹(Magang)	3,000	2019년 합병	
주요 계열사	바오산(Baosteel)	2,900	
	우강(Wugang)	2,200	
	샤오구안(Shaoguan)	600	
	신장베이(Xinjiang Bayi)	900	
	쿤밍(Kunming)	800	
	장지안(Zhanjian)	1,000	
	마안산(Maanshan)	2,000	
안벤그룹(Anben Group)	3300만톤	2019년 말 3600만톤 추가 2020년 연 6000만톤 체제	
주요 계열사	링위안(Kingyuan)	600	2020년 합병
	베이타이(Beitai)	700	2020년 합병
	판지화(Panzhuhua)	1,000	2022년 합병
쇼우강그룹(Shuogang Group)	3400만톤		
주요 계열사	통화(Tonghua)	600	2018년 합병
	산시창지(Shanxi Changzhi)	300	2018년 합병
	싱장(Xingjiang)	200	2018년 신설
	*차오페이덴 항구(당산시) 신설	1,000	
산둥그룹(Shngdong Group)	2200만톤 2020년 연 4400만톤 체제	지난강철/라이우강철 합병	
	칭다오(Qingdao)	400	합병예정
	르자오(Rizhao)	1,800	합병예정
샤강그룹(Shagang Group)	2500만톤 연 4100만톤 체제(합병+증설)		
	장수화인(Jiangsu Huaiyin)	400	합병예정
	용강(Yonggang)	1000	합병예정
	헤난용싱(Henan Yongxing)	200	합병예정
허베이그룹(Hebei Group)	5000만톤	당산/한단/청두 등 합병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핫토픽] 철강업계 매출순위 '요동'...수출 주력기업 '순위 꺾춤', 대한제강 한철 휴스틸 중견 19사 하락
- 1~10월 법인파산 769건, 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철강업계도 도산 우려 '심화'
- 불황대비 부채 줄이는 철강업계...대한제강 폭증 '상반'
-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성과 1조2000억... '변화와 혁신 지속 추구'
- 포스코, 하북강철 제휴 자동차강판 생산 현지 진출
- 포스코 베 SS비나, 야마토그룹에 지분매각 '공동경영 합의'
- 현대제철, 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체결
- 동국제강 보직변경 '특수강사업팀' 신설, 박상규 노조위원장 은답산업훈장 수훈
- 철강협회, 철강특화 소재·부품·장비 기술교육 인기
- H형강 유통價 하락 '일단정지'...철근 "주문 못받는지 오래"...도산우려 '팽배'
- 원일특강 밀양공장 '신규사업 성장동력 강화'
- 동일철강 형강사업 매각 부채비율 '뚝'
- 해외 : 글로벌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량 사상 최대치 1~3분기 3981만톤, 중국 10% 상회 증가율
중국 철강 가격 하강국면 돌입 전망, 내수 철근가 열연가 하향 돌파 하락장 특징
글로벌 철스크랩(고철) 가격 초강세 HMS No.1&2 320달러 기록, 국내는 약세 전환
아르셀로미탈, 유럽 전기로 가동중단 '비용부담' 탓
美 상무부 현대제철 열연 관세 '제로화'...한국산 열·냉연 면제
중국 11월 철강재 수출 458만톤 8개월 연속 감소, 2019년 약 6500만톤 추정 전년비 6%↓

2) 수요/연관 뉴스

- 韓 조선사, 올 한 해 수주액 164억달러...中 제치고 1위
- 대우조선해양, 2억달러 규모 해양플랜트 수주...LNG운반선 등 선박 3척 3억8천만달러 수주
- 현대글로벌모터스-미국 ARC 김천산업단지 1000억원 투입, 자동차 신소재 공장 건립
-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핵심공장 매각 검토...LNG 운반선 철수
- 한-독 자동차협회 협력의향서(LOI) 체결...미래차 대응에 공조
- 해외건설 수주 180억달러 13년만에 최저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66.2%
- 中 11월 자동차판매 전년 比 3.6%↓...17개월째 감소

3) 경제/산업 뉴스

- 15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71.7원 (전일 대비 ↓15.10원) 원/100엔 1069.22원 (↑23.65원)
- 11월 수출물가 전월대비 1.8% 하락, 수입물가 1.0% 하락
- ECB, 기준금리 동결...순자산매입정책 유지
- ADB, 올해 한국성장률 2.1%→2.0% 하향...내년도 2.3%로 하향
- 일본 10~12월 대기업 전산업 업황 판단지수 -6.2...2분기만에 마이너스
- 12월 1~10일 전년동기대비 수출 7.7% 증가, 수입 8.0% 증가

- 11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 61.7% 역대 최고
- 중국, 11월 소비자물가 4.5% 상승...예상치 4.3%
- 주요 경제지표 (12. 13.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11말	12.11	12.12	12.13	전일비	18말비
₩/US\$	1,070.50	1,115.70	1,181.20	1,194.70	1,186.80	1,171.70	△1.27	5.02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80.80	1,193.80	1,185.80	1,171.00	△1.25	5.03
₩/CNY	163.9	162.79	168.23	169.76	168.78	167.66	△0.66	2.99
₩/¥100	949.28	1,008.86	1,078.82	1,098.78	1,092.92	1,069.36	△2.16	6
Y/US\$	112.77	110.59	109.49	108.73	108.59	109.57	0.9	△0.92
US\$/EUR	1.1927	1.1455	1.1009	1.1089	1.1138	1.1167	0.26	△2.51
CNY/US\$	6.5426	6.8522	7.0338	7.039	7.0304	6.9775	△0.75	1.83

* '18년 평균 환율: (₩/US\$)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 19.1.1~현재): (₩/US\$) 1166.2원, (₩/¥100) 1071.0원, 3시 30분 기준

[유가곡물·원자재]	'17말	'18말	'19.11말	12.1	12.11	12.12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3.83	63.84	63.78	64.01	0.36%	21.09%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5.17	59.24	58.76	59.18	0.71%	30.55%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 19.1.1~현재) (Dubai): 63.39\$, (WTI 선물): 56.83\$

[주가]	'17말	'18말	'19.11말	12.11	12.12	12.13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87.96	2,105.62	2,137.35	2,170.25	1.54%	6.33%
-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44,832	41,729	48,372	83,394	72.40%	-
KOSDAQ	798.42	675.65	632.99	629.13	636.94	643.45	1.02%	△4.77%
외국인순매수 (억원, 기간 중)	1,409	2,730	△4,561	140	5,306	5,249	△1	-

* 기간중: '17말(' 17.1.1~12.31), '18말(' 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9.12.06)

- 2019년 4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회복 또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면에 위치.
-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 요인은 인디아 리스크와 수출 경기의 향방,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경제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 회복 여부 등임
- 향후 경기전망은 그동안의 장기 침체로 경기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경기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바로가기 : <https://hri.co.kr:442/storage/newReList.asp>

2) 2019년 하반기 니켈 가격 급상승 요인 분석 및 중기적 향방 (출처 : POSRI, 19.12.04)

- 2019년 10~11월 니켈 평균 가격이 2018년 12월 대비 48% 급상승
- 글로벌 스테인리스 생산의 견조한 증가, 전기차동차 배터리용 수요 급증 및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기 시행 계획 등에 기인.
- 중기적으로 이들 수요, 공급 3대 변수의 전망과 그에 따른 니켈 가격 향방을 예측해 본다.

*. 바로가기 :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144>

3)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2.12)

-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 12. 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
- 직접적 원인인 미국의 상소기구 기능에 대한 미국의 불만 누적이 작용하였으며 패널심(1심) 개시 및 진행은 가능하나, 향후 새로운 상소심(2심)은 개시될 수 없음.
- 우리나라도 WTO에서 분쟁당사자로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바로가기 :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5503